

# 2008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②	2	③	3	⑤	4	④	5	③	6	②	7	②	8	③
9	②	10	②	11	①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9	①	20	⑤	21	②	22	④	23	①	24	③
25	⑤	26	⑤	27	④	28	⑤	29	③	30	⑤	31	⑤	32	①
33	②	34	④	35	③	36	②	37	②	38	①	39	④	40	①
41	①	42	④	43	⑤	44	④	45	②	46	④	47	④	48	①
49	③	50	④												

### 해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꿈 많던 스물두 살 청년 피에르 가르탱은 어느 날 종이 두 장을 손에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리의 적십자사로 갈 수 있는 추천서와 디자이너 왈드너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소개장. 긴 망설임 끝에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위로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왈드너, 뒷면이 나오면 적십자로 가는 거야.”

결과는 앞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션계에 발을 내딛게 된 그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에르는 재능과 노력을 인정받아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인 디올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던 그에게 또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디올이 죽고 나자, 그의 후계자로 피에르가 지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장래는 보장돼. 하지만 내 이름을 건 가게를 내보고도 싶어.’

이번에는 연필을 세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디올, 왼쪽이면 내 가게.”

연필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독립을 택한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에르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에르 가르탱을 두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일이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선택의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어도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1. [출제의도] 이야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피에르 가르탱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다소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실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2번> 이번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이번에 연출하신 연극이 화제인데요, 우선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 :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때마다 줄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여 :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 : 기존 연극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그런 연극이 아닙니다. 관객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해진 줄거리는 따로 없습니다.

여 :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 : 이 작품에서 관객은 공연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배우들은 관객에게 욕을 하거나 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배우들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난 한두 관객은 무대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관객이 무대에 올라오면 배우는 그 관객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 무대에 오르는 관객이 없으면 배우가 직접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에게 말을 걸며 공연을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연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됩니다.

여 :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죠?

남 : 공연에 관객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습니다. 관객은 연극이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연극이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2. [출제의도] 인터뷰를 듣고 핵심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연극을 홍보하기 위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즉 정해진 줄거리 없이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 간다는 내용과 뒷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즉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연극이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것을 인식시켜 연극이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구는 ③이다.

<3번>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물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협동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협동을 위한 특별한 행동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 하나가 같은 종끼리 영구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집단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때 형성됩니다.

먼저, 포식자에게 붙잡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개체들이 단순히 무리를 지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파라는 물고기는 떼 지어 다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개체수와 색깔이 포식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구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행위만으로는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때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 협력의 열쇠는 집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개체들은 각자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개체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집단은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3.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례는 영구적인 집단 중, 집단 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동물의 경우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파수꾼, 보호, 유모라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미어캣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는 서로 다른 종이 공생하는 경우이고, ③의 '쥐'의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5번>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대학 언론학과 최 교수님을 모시고 PPL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최 교수(남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 교수님, 우선 PPL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교수 :** 영화나 드라마에 배치된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들 중에는 일종의 광고 효과를 노린 게 많습니다. PPL은 화면에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배치해서 관객 또는 시청자들의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지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대금을 지불하는 식의 간접 광고를 의미하죠.

**사회자 :** 네. PPL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종의 ‘끼워 넣기’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 일부 영화에 쓰인 PPL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PPL의 생명은 관객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일부 영화에서 PPL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줄거리나 장면 전개에 상관없이 무작정 PPL을 끼워 넣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면 영화의 구성이 억지스럽게 되어, 결국에는 관객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광고를 위한 영화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PPL이 노출된다면 관객의 정서적인 몰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크죠.

**사회자 :** 네. 말하자면 PPL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데, 억지스럽고 과도한 PPL이 관객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PPL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최 교수 :** 우리 영화 제작 환경이나 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PPL을 통해 영화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효과만을 생각해서 PPL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PPL은 그 노출 정도보다는 장면 중요도, 즉 얼마나 중요한 장면에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그 광고 효과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물의 캐릭터, 스토리 전개 양상 등 영화나 드라마의 특성에 어울리게 PPL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광고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광고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4.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발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최 교수)가 ‘PPL’이 광고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광고 기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 대담에서 찾아볼 수 없다.
5.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발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사회자)의 세 번째 말과 네 번째 말에 주목하면,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말에서는 우선 남자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든가 ‘일종의 끼워 넣기 마케팅’이라는 식으로 ‘PPL’의 개념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에서는 남자가 말한 바의 핵심을 간추려서 ‘PPL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데, 억지스럽고 과도한 PPL이 관객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김장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 메모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서한 결과를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기른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조건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과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밝히라는 것이다. ㉡의 경우, ‘구르는 눈 덩이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거짓과 오해를 부풀린다는 소문의 부정적 측면을 밝히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⑤ 대상의 부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양면성을 밝히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③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옹기’라는 대상의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지 않았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상황에 맞게 글쓰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일반 국민을 예상 독자로 하여 이주 노동자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글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을 글의 처음에 밝혀야 한다. 그런데 ③은 문화적 편견 해소와 관련이 먼 내용이고 정부의 제도와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을 예상 독자로 하여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나)의 글쓰기 상황에 맞지 않는다.
9. [출제의도] 전체의 흐름에 맞게 개요를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개요의 ‘본론 1’에서는 ‘포장재 쓰레기가 늘고 있는 원인’을, ‘본론 2’에서는 ‘포장재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각각 기업과 소비자의 차원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본론 1-(2)’에서 제시한 원인과 연계 지어, 소비자의 차원에서 포장재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호화로운 포장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문장의 호응 등을 고려하여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속한 문장의 주어는 ‘할 일은’이므로 이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뿔는다’가 아니라 ‘뿔는 것이다’가 되어야 한다. ㉠에는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소화기는’을 넣어주어야 한다. 또, 이 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과 같이 화재 예방이 우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의 ‘떠는’은 ‘어떤 성질을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눈에 보이다’라는 뜻의 ‘떠는’으로 고쳐야 한다. ㉣의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는 것으로 목적어인 ‘방법을’과 문맥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익혀서’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11.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접미사의 용법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예 중에서 ‘멋쟁이’는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접미사 중에 ‘-쟁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기>의 세 접미사는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이 없다. 다만 이 세 접미사가 붙는 앞말의 의미에 따라 부정적인 느낌이 생겨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떡보’는 동사의 어간 ‘떡-’에 접미사 ‘-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울보’ 역시 동사의 어간 ‘울-’에 접미사 ‘-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⑤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예들 중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지 않는 것은 없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주어진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표’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③의 경우 받침 ‘ㄷ’은 자음 ‘ㄷ’ 앞에 있

기 때문에 대표음 [ㄷ]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솔뚜껑’은 [솔뚜경]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는 모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의 ‘제13항’에 따라 앞말의 받침을 모두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지문 해제] 13~16**

**출전 : 조용진 외, 「동양화란 무엇인가」**

이 글은 서양화에 비해 동양화(옛 서화)에 나오는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7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열거한 다음, 그런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동양의 사고방식에서 찾고 있다. 즉 사생을 중시하는 서양화에 비해 동양화는 화가의 관념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러므로 동양화는 동양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서양의 풍경화에서는 필수이다시피 한 빛의 표현과 건물의 명암과 나무들의 그림자가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표현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같이 빛의 표현을 중시하였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에서 동양의 그림에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동양의 그림은 서양의 사생(본 대로 그리는) 기법과 달리 화가가 생각한 것이나 아는 것, 즉, 관념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진술을 사례로 보충하려면 화가의 생각이나 관념을 그린 그림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⑤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했으므로 화가의 관념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귀양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을 한결같이 대하는 제자의 마음에 감격하여 그린 ‘세한도’이다. 긴 화면에 집 한 채와 소나무와 잣나무 각 두 그루를 그려 세상의 매운 인정과 고독, 선비의 굳센 의지 등 집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신을 그린 것이다. 그러기에 지문의 글처럼 서양화의 기준으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인다. <보기>의 그림과 글에 설명된 것처럼, 먼저 삼각형의 지붕은 정면에서, 둥근 창문은 왼쪽에서, 긴 직사각형 집은 오른쪽에서 보고 그렸다는 점에서 이 그림에는 세 개의 시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지붕에 비해 소나무가 가리고 있는 벽은 뒤로 갈수록 오히려 넓어진다는 점에서 역원근법도 보인다.

**16. [출제의도]**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문맥 속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다’는 ㉡의 ‘본’처럼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가 중심 의미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 ‘보니’는 ‘앞말(‘익숙하다’)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서술하는 보조용언으로 쓰였고, ㉣의 ‘보는’은 ‘눈으로 대상(‘서양화’)을 즐기거나 감상하다’는 의미로, ㉤의 ‘볼’은 ‘대상(‘서양의 과학적 표현’)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다’는 의미로, ㉥의 ‘보아야’는 ㉢처럼 동양의 그림을 동양적 시각으로 ‘감상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지문 해제] 17~20**

**출전 : 한전숙,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의 판단과 관련된 학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글이다. 대응설과 정합설, 실용설에서 각각 진리 여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학설들이 지닌 한계들을 지적하였다.

**1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춘 지식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학설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대응설과 정합설, 실용설에서 각각 진리 여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학설들이 지닌 한계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과제물이라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학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라는 과제에 응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의 내용을 보면, 정합설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그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합설에서는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진리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두 사람이 상반된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둘 다 성공했을 경우 이 상반된 신념이 각각의 사람에게 진리로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때 신념의 진리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때 성공에 이르렀는가의 여부로서, 이는 실용설에서 주장하는 진리 판단의 기준에 해당한다. 결국 <보기>는 실용설에 따른 진리의 판단이 지닌 한계를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가리다’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서 분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⑤의 ‘가리는’ 역시 ‘잘잘못을 따져서 분간하다’라는 의미로서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은 ‘자기 일을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다’, ②는 ‘보이거나 통하지 못하도록 막히다’, ③은 ‘낮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④는 ‘음식을 골라서 먹다’의 뜻으로 쓰였다.

**[지문 해제] 21~26**

**(가) 이형기, 「낙화」**

꽃잎이 떨어지는 ‘낙화’ 현상과 이별을 겹쳐 놓음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인간사를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낙화는 꽃이 저서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 사랑과 이별, 청춘기에서 성년기로 이어지는 인간사의 흐름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복효근,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

토란잎에 맺힌 물방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물방울은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상대를 배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자연물이다.

**(다) 작자 미상, 「가시리」**

고려가요로, 작품의 화자는 입과 이별하는 아픔을 호소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입을 붙잡아 두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여인의 아픔과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각 연에 반복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1. [출제의도]** 작품들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봄날 꽃이 떨어지는 ‘낙화’ 현상을 소재로 취하여 낙화의 의미, 사랑과 결별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며, (나)는 토란잎에 맺히는 물방울을 소재로 사랑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즉 두 작품은 모두 자연 현상을 소재로 취하여 이로부터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2. [출제의도]** 시의 음악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1연, 2연의 둘째 행은 의문형 종결어미로 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2연 첫째 행은 둘째 행과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있

며, 3연의 첫째 행은 둘째 행과 방임형 연결어미로 연결되었고, 둘째 행은 의구형 종결어미가 쓰였다.

2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다른 작품의 시구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시인은 '털어 내기도 전에 먼저 알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물방울의 마음을 사랑이라 하였다. 작품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여기서 '털어 낸다'는 '사랑이 끝남'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는 '사랑이 끝남을 먼저 알고 그 흔적을 거두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는 (가)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모습과 유사하다. 토란잎이 털어 내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알고 사라진다는 것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이며, (가)에서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가)에서는 이별을 '축복'이라 하였다. 그러나 ㉡의 맥락에서 이별을 '축복'으로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더구나 '축복을 위해' 간다는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 ㉤는 이별의 시간을 먼저 알고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의 경우는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호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양상이 다르다.

24. [출제의도] 특정한 시구에 근거하여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꽃이 떨어지는 모습은 '무성한 녹음', '열매 맺는 가을'로 이어지고 있다. 곧 낙화와 이별의 슬픔에서 미래의 성숙을 읽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녹음'과 '열매'가 '풍요'를 상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맥락에서 '낙화'를 가난과 절망으로, 그것과 연결하여 '녹음과 열매'를 풍요로운 세계로 읽을 수는 없다.

25. [출제의도] 새롭게 설정된 상황 속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청자로 설정된 '임'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임'을 청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의 말하기 방식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보기>의 등장에서 화자는 '저도 날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화자가 여전히 임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종장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는 표현 등에서 이별한 임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 <보기>의 초장은 '이화우 흠뻑릴 제'에서 보듯이 화자가 임과 이별한 시간이 봄이었음을 알려준다. 종장은 '추풍 낙엽'이라는 시구를 통해 이 노래를 부르는 시점이 이별한 후에 시간이 흘러 가을임을 보여준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어'는 '실제와는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여 표현의 효과를 거두는 기법이다. ㉠은 욕망(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다)과 현실(선하면 아니올 지도 모른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반어적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 ㉡에서는 한창인 봄날을 배경으로 떨어지는 꽃잎과 이별을 겹쳐놓고 있다. 여기에 사랑의 걱정을 다스리고, 억누르기 힘든 아픔과 슬픔을 애써 이겨내려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 무르익은 봄날, 꽃도 절정에 이르러 만발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꽃은 떨어진다. 아름다움의 극치 속에 비극이 담겨 있는 것이다. '걱정'이란 시어 그대로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참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걱정을 인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봄 한 철'을 한 행으로 독립시킨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의미만으로 본다면 '봄', '봄날', '봄철' 등으로 표현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창'의 의미를 가진 '봄 한 철'을 택하고, 그것을 하나의 행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사랑의 걱정에 휩싸였던 시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떨어지는 꽃잎,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하는 이별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애써 이겨내는 화자의 내면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문 해제] 27~29

출전 : 정희원,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어떤 말을 외래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우선 사전적 정의를 통해 외래어의 개념을 밝히고 있으며,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외래어의 개념을 심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외래어의 어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외래어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넷째 문단을 보면 영어의 [f]나 [r] 소리, '셔츠', '미팅'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② 둘째 문단을 보면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어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라는 글의 중심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③ 넷째 문단을 보면 동화의 조건을 음운, 문법, 의미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첫째 문단을 보면 외국어와 외래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외국어와 외래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④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는 유추는 설명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을 보면 외래어는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쓰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넷째 문단을 보면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동화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문단을 보면 외국어는 우리말이라 할 수 없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지만 외래어는 우리말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외래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외래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가 유래한 나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지를 통해 외래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이끌어 낼 수가 없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을 보면 영어의 [r] 소리는 우리말에서 [ㄹ] 소리로 바뀌는데, 이는 원래의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바뀌는 음운상의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운상의 동화 현상은 원래의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즉 우리말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트러블'에서 '러'의 'ㄹ'은 영어의 [r] 소리가 바뀐 것으로 원래의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바뀐 음운상의 동화 현상에 해당하므로 ㉢은 잘못된 이해이다.

[오답풀이] ㉠ '타이트하다'는 '타이트'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 형용사 구실을 하면서 '-하다' 형태로 사용되는 것으로, 넷째 문단에 따르면 해당 단어가 우리말의 특징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아나운서'는 순화의 대상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완전히 동화된 외래어로 볼 수 있다. ㉣ '빵'은 <보기>의 다른 단어와는 달리 원래의 외국어 단어가 병기되어 있지 않고, 의미 풀이 끝에 【㉣pāo】라고 하여 그 어원이 밝혀져 있으므로 일반인들에게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의식 없이 사용되는 귀화어에 해당한다.

[지문 해제] 30~33

출전 : 방건웅, 「공간을 뛰어넘는 생체신호 - 생체광자」

이 글에서 글쓴이는 생명 현상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체광자의 속성에 대한 규명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글쓴이는, 생체광자의 존재가 생명체들이 전자파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30. [출제의도] 글을 읽고 사실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 주목하면, 생체에서 방사되는 광자인 생체광자는 화학적 반응 현상인 생체발광에 의해 생겨나는 빛과는 다르다.

31. [출제의도] 글을 읽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캘러한의 연구에 따르면 암나방의 페로몬에서는 미약한 전자기파가 방사되고, 수나방의 더듬이는 일종의 안테나 구실을 하면서 이 전자기파를 감지함으로써 둘 사이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특히 수나방의 더듬이가 암나방의 페로몬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와 공진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나방과 수나방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수나방이 암나방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32. [출제의도] 글을 읽고 추론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캘러한은 페르몬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쬐이면 수나방이 날아오지만, 빛을 쬐이지 않으면 날아오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빛을 쬐인다는 조건이 수나방이 날아오는 행동과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였다. 이는 'A라는 조건에서 C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A와 반대되는 조건에서 C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A라는 조건과 C라는 결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추론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①에서도 이러한 추론 방식이 나타난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사(放射)'란 '중심에서 사방으로 내뿜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은 '분사(噴射)'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지문 해제] 34~37

출전 : 양귀자, 「마지막 땅」

이 소설은 연작 「원미동 사람들」 중 <마지막 땅>의 일부로, 성장과 소외, 풍족과 빈곤이 치열하게 공존했던 80년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원미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박씨와 그 부인 고흥택은 강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유사장에게 팔게 하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강노인을 부추기나 땅값과 상관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동네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강노인은 '서울것들'에게 강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는 세상에 맞서 땅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34. [출제의도] 중심 소재와 관련지어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미동 사람들'은 전통적 '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강노인과 달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화려하게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강노인'은 농사를 짓는 가운데 '땅'의 가치를 찾고 있으며, ② '강노인'이 말하는 '서울것들'이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③ '박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로 동네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 ⑤ '강노인'이 고집하고 있는 '마지막 땅'은 땅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의 위기를 상징한다.

35.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및 전개 방식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 중 특히 '강노인'의 입장과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빠른 장면전환이나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며, ② 땅 매매를 둘러싼 '강노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④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배경묘사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⑤ 공간 이동도 없으며,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도 없다.

36.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땅을 팔게 하기 위하여 '박씨'와 '고흥택'은 '강노인'을 여러 가지로 설득하지만 '강노인'의 잘한 점을 추켜세우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삼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므로 '삼시간에'는 '순식간에'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숫제'는 '아예', ③ '짐짓'은 '일부러', ④ '가타부타'는 '어떤 일에 대하여 읊다느니 그르다느니 함', ⑤ '말뼉새'는 '말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문 해제] 38~41

출전 : 작자 미상, 「운영전」

이 작품은 안평대군의 수성궁을 배경으로 하여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궁중에 갇혀 지내야 하는 운영의 모습은 조선시대 유교의 비인간적인 폐습과 제도로 인해 억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궁녀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추구하는 운영과 진사의 모습은 봉건 사회의 궁중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고 참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8.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을 통해 수 있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운영'은 무녀를 통해 진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고 자 무녀를 지성으로 섬기고 무녀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다. 하지만 무녀는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진사가 무녀 자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녀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진사와 운영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의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작품에서 궁녀의 신분을 지닌 운영이 사랑하는 진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사와의 사랑을 밝히지 못하는 모습은, <보기>에 나타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마저 억압당하며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조선시대 궁녀의 모습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진사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운영에게 현실은 진사와의 사랑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 궁의 주인이 아닌 다른 이성(異性)과 사랑을 할 경우에는 참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운영이 진사와의 사랑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성(異性)과의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작품을 통해 현실적 억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즉 사랑을 추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작중 인물 사이의 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취가 어디서 그 말을 엿듣고는 짐짓 모른 체하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비취는 이미 운영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취의 말은 운영을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영의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운영이 진사와 사랑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기를 바라며 던지는, 즉 운영을 은근히 떠보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운영은 비취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사와의 사랑과 관계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돌려대고 있다.

[오답풀이] ② 비취의 말은 조롱하는 말로 볼 수 있으나, 운영이 통명스럽게 대꾸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제시된 인물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어 슬퍼하는 운영에게 자란은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란이 제시한 방법은 무녀의 집이 소격서동에서 가까우니까 매년 가을에 탕춘대에서 베풀던 술자리를 소격서동에서 베풀면, 오고 가는 사이에 진사에게 전할 편지를 무녀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운영은 자란의 말을 듣고 가을이 오면 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 해제] 42~44**

**출전 : 황희영,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라」**

이 글은 인간의 관심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관심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여 의사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이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관심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기업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평판’과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42.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를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했던 과거에는 생산을 중심으로 정보가 관리되었지만,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가 중시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문단의 핵심 내용과 서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는 ‘평판’과 ‘신뢰’의 역할, 이를 얻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단은 화제의 의의를 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상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개인이 의사 결정을 할 때, 평판과 신뢰가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소비자의 평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에서 물품의 재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평판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문 해제] 45~47**

**출전 : 이재인, 「화장실, 악취를 물리치고 당당히 입성하다」**

이 글은 실내 화장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변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컵을 기울이지 않고 컵 안의 물을 밖으로 빼내는 과정을 통해 변기의 작동 원리에 해당하는 사이펀의 원리를 설명한 후, 변기의 경우 사이펀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내 화장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해당하는 ‘변기에 차 있는 물’과 관련하여 변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실내 화장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인 ‘변기에 차 있는 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문단에서 변기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사이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후, 3문단과 4문단에서 변기의 경우 사이펀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한 후, 5문단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로 설명하고자 한 내용은 변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46. [출제의도]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

**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3문단의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면서 늘어난 물의 압력으로 인해 사이펀은 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고, 사이펀 속에 작용하던 대기압이 사라지게 되면서’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계영배’에 술을 가득 채우면 술의 압력으로 인해 ㉠에서 ㉡로 이어지는 부분(사이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안쪽이 채워지게 된다. 사이펀에 해당하는 부분이 술로 채워지게 되었으므로 사이펀 속에 작용하는 대기압은 사라지게 된다.

**[오답풀이]** ㉠ 2문단의 후반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관 속(㉠에서 ㉡로 이어지는 부분)에 술이 채워지면서 관 속에 작용하는 대기압이 사라지면서 술이 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이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 2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 내용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이펀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야 사이펀의 원리에 의해 변기의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3문단의 내용과 물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후에 변기에 물이 서서히 공급되면 물의 압력이 사이펀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급되는 물의 압력이 약해지지 않으면 사이펀이 물로 가득 채워지고, 이 경우 사이펀의 원리에 의해 변기의 물이 하수구로 모두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물이 모두 빠져 나가지 않고 변기에 차 있도록 하기 위해 변기의 구조는 적은 양의 물이 서서히 변기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문 해제] 48~50**

**(가) 이태준, 「물」**

맑은 덕으로 남의 더러움을 씻어 주고, 넘쳐 흘러가는 자태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모든 생물들을 운택하게 하는 물의 아름답고, 고맙고, 성스러운 덕성을 예찬하고 있는 수필이다.

**(나) 정목일, 「벼」**

황금 빛깔의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벼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온갖 시련과 그 시련을 겪고 결실을 이루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벼의 덕성을 예찬하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4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물의 아름답고, 고맙고, 성스러운 덕성을 예찬하고 있으며, (나)는 성장 과정에서 온갖 시련을 겪고 결실을 맺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벼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공통점은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된다.

**49. [출제의도] 글쓴이의 생각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벼의 모습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목이 타들어가고 물에 잠겨도 묵묵히 견디고 멸구에 시달리면서도 밤을 지새우는 벼의 모습에서 어떤 시련도 기꺼이 견디어 내는 삶을, 벼들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모습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말없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생명을 주고 기른 어머니이며 생명을 키우는 위대한 모성과 인류를 먹여 살리는 더없이 고마운 벼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삶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감사하며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해당하는 벼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50. [출제의도] 구절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이 타들어가고 물에 잠겨도 묵묵히 견디고 멸구에 시달리면서도 밤을 지새우는 벼는 7, 8월이 되어 부끄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꽃을 피운다. 이러한 모습을 ‘귀여운 귀걸이’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벼꽃’의 연약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